

지역 소식통

김제시,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실시

김제시는 13일부터 8월 14일
까지 33일간 '2019년 기준 광
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광업·제조업 부
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산업활
동 실태 등을 파악하여 각종 경
제정책 수립 및 산업 연구·분
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통계
조사이다.

조사대상은 시 관내 사업장으
로 광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가운데 2019년 중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2019년
12월말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165개 사업체가 해당된다.

조사원들은 지역 조사구별로
업체를 방문, 면접조사를 원칙
으로 하면서 인터넷조사도 병
행하며,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
액,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
입액 등 13개 항목을 조사하게
된다.

이번 조사결과는 점진적으로
오는 12월경에 공표될 예정이
며, 국가통계포털(kosis.kr)에 수
록된다. /김제=곽도태 기자

완주 둔산영어도서관
지역작가 협업 활발

완주군 둔산영어도서관이 지역
작가와 협업해 문화향유프로그램
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13일 완주군에 따르면 둔산영어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완
주를 알고, 나를 찾아가는 누구나
작가'를 주제로 매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달 16일 첫 시작과 함께
오는 8월 21일까지 상반기 프로그
램이 운영 되고, 9월 1일부터 하
반기 프로그램이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다들다 시 창작교실 시즌
1'이 매주 화요일 10시에 '살화
(켄드로잉)와 장서포 이야기'가
매주 목요일 10시, '슬기로운 단
편생활'이 매주 금요일 14시에 성
인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은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지역 작
가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들어보
고, 작가의 서재, 영사산책, 교정
교열 교육 등 문화 연계 활동들
해보는 시간도 마련되고 있다.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자세한 사
형은(http://lib.wana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활동가' 발대식

완주군, '아동친화도시 2.0 중장기 기본계획' 따라 본격 운영 돌입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이 '아
동친화도시 2.0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활동
가'를 본격 운영한다.

13일 완주군은 이를 전에 2020년 유
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활동가 발대식
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발대식에는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장을 포함한 소관실, 윤수봉, 이경
애, 서남용 의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 황세영박사, 완주군청소년문화의
집 이종하 관장, 등 아동·청소년, 대
학생 활동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청소년축제기획단인 감지향·조하
나 청소년이 사회를 맡은 이날 행사
는 박성일 완주군수의 위촉장 전수와
김광집 통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활동
가 환영식, 흥문기 박사(완주군청)의
아동친화도시 활동가 소개 등으로 진
행되었다. 이후 분과별 모임을 갖고
향후 활동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동친화도시 활동가 사업은 아동·
청소년이 직접 지역사회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참여
를 확대하는 완주군만의 특화사업이
다.



군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 활동가
모집에 나서 총 72명이 신청했으며,
청소년축제기획단과 청소년기자단,
아동권리옹호재단에서 활동하게 된
다.

청소년축제기획단은 올해 9월에 개
최되는 제4회 아동청소년권리축제를
기획·운영하며, 청소년기자단은 아
동친화도시의 소소하고 행복한 일상
을 공유하는 기사를 취재한다.

또한 아동권리옹호 재단은 '삶,
꿈, 권리'를 주제로 아동권리옹호를
제작해 상영회를 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올해 지역사회 청소년 성
장지원 모델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완주군, 완
주군청소년문화의집이 주최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아동친화도시
는 미래의 주역인 아동·청소년이 지
역사회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며
"이런 사회활동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확대되면 우리가 바라는 성숙한 민주
시민에 의한 아동친화문화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김제시 청
년창업 지원사업 '아리(All-Re)' 참여자가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돌아온 강씨네 딸래미' 장려상 수상

'아리(All-Re)' 참여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로 선정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김제시 청년창업 지원사업 '아리(All-
Re)' 참여자가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고 밝혔다.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5월 행정안전
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업의 성과를 공
유·확산하기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
했으며, 최근 20명의 수상자를 발표했
다.

그 중 김제시 청년창업 지원사업 '아
리(All-Re)'를 통해 창업에 성공한 광
활면 소재 여회공방 강희진(29) 대표
가 전북 청년창업 분야에서는 유일하
게 "돌아온 강씨네 딸래미(역시 고향
이 최고제~)"로 참여수기 부문 장려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강 대표는 10년간 제주도에 거주하
다가 부모님의 권유로 지난해 6월 김
제시로 전입했으며, 2019년 '아리' 사
업에 선정돼 창업초기비용 1천7백만원
을 지원받아 농촌지역의 사계절 새참

을 창업 아이템으로 지역 농산물로 직
접 만든 빵과 단호박식혜, 찹쌀떡, 팔
빙수 등을 새벽부터 배달하는 열정으
로 청년창업에 도전했다.

대표는 "처음에는 사내권에 매장을
오픈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리'
사업을 통해 여러번의 교육과 멘토링
을 거쳐 고향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매장 인테리어와 홍보관측물
제작, 다른 청년창업가들과의 네트워
킹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어렵기만
했던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며 "향후 지역에서 받은 도움
을 환원할 수 있는 청년창업가로 성장
하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제시가 2020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
리'(All-Re) 사업은 '모든 것(All)을 다
시, 새롭게(Re)' 시작하자는 의지를
 담은 김제시 사업명으로 청년창업가
38명을 육성, 추진 중인 사업이다.

/김제=곽도태기자

로컬푸드 1등 완주군, 먹거리 복지도 이끈다

농식품부 농식품바우처 사업 선정... 5억 전액 국비로 사업 진행

완주 푸드플랜으로 누구에게나 평등
한 먹거리 제공을 지향하고 있는 완주
군이 농식품부 바우처 공모사업에 선
정돼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완주군은 최근 농식품부가 시행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
돼 사업비 5억원 전액을 국비로 추진
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취약계층

의 식품접근성 개선과 계층 간 영양
(건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영양의 보
충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국내산의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취약계층이 지속적으
로 소비할 수 있도록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선순환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완주군이 이번 시범사업에 선
정되면서 관내 중위소득 50%이내
26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이들 주민들에게 국내산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
를 3개월간 지급한다.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국내산 채
소, 과일, 우유 등이 구입가능하다.

군은 대한민국 로컬푸드1번지의 노
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1000품목 이
상의 로컬푸드 상품과 12개소 로컬푸
드 직매장과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바우처 사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한다는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청년회의소(JC)회원 초청 간담회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13일 시청 2
층 상황실에서 김제청년회의소(지회
장 나경균) 회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제청년회의소 회
원들과 김제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 3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현안 사업
을 공유하고, 단체의 의견 등을 수렴
했다. 또한 간담회를 마친 후 김제시

와 김제청년회의소 간 인구조속 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개최됐다.
김제청년회의소는 평균연령 33.4세의
젊은 단체로서 개인능력개발, 지역사
회개발, 사회능력개발, 세계화의 우정
을 4대 원칙으로 하는 사회공헌단체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클린캠페인
방역봉사, 김제사랑 헌혈캠페인 봉사
등 김제사람을 품소 실천해오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도태기자

김제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공간 '다가온(ON)' 운영

김제시(박준배 시장)는 여성가족부
주관 복귀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김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라경 센터장)에서 지평선어울림센
터 3층에 김제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류 소통공간 '다가온(ON)'을
리모델링하여6월 운영을 시작했다.

다가온(ON)은 '다문화가족이 교류
하며 밝게 ON 하자, 문화교류를 통해
지역에 다가오자'라는 뜻을 담고 소
통을 통한 교류 촉진, 자조활동을 통
한 사회 적응 및 자립역량 강화, 자녀

민의 교류·소통공간으로 확대 운영
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김제기타페스티
벌 위원회로부터 클래식 기타 5대를
기증받아 '클래식 기타 교실'을 주 2
회 결혼이주여성들 대상으로 한국 생
활에서 오는 의로움·자녀 양육·집
안일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교류소통공간 '다가온(ON)'은 월~
금,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김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건강가
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63-545-
8506)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도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